

제공일자	2014. 9. 15	담당자	전용식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3775-9115)	연락처	3775-9035
			총 3매

가구당 보험가입률,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주요 보험관련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5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한 조사와 최근 주요 이슈인 노후생활 및 연금, 은퇴자산 선택,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장상품 구매의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이다.

2014년 보험가입률,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13년과 비교하여 1.4%p 상승한 97.5%로 나타났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8%p 상승한 85.8%,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0.9%p 상승한 87.7%를 기록하였다.

개인별 보험가입률의 경우 전년대비 0.2%p 하락한 93.8%를 기록하였다.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2.0%p 상승한 반면,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다. 개인별 손해보험가입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가구당 손해보험 가입률이 2011년 이후 하락한 것은 장기손해보험 수요 확대가 가구당 보험가입률 상승보다 개인 보험가입률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구 및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구	생명보험	89.9	88.0	87.3	86.3	83.0	85.8
	손해보험	87.4	85.9	91.4	87.2	86.8	87.7
	전체	97.4	96.4	98.0	96.1	96.1	97.5
개인	생명보험	81.8	81.4	78.0	79.3	77.3	79.3
	손해보험	59.5	65.0	71.5	67.9	74.6	74.3
	전체	92.0	92.1	92.5	92.9	94.0	93.8

노후자금은 펀드·주식·채권보다는 안전한 예·적금, 저축·연금보험 가입으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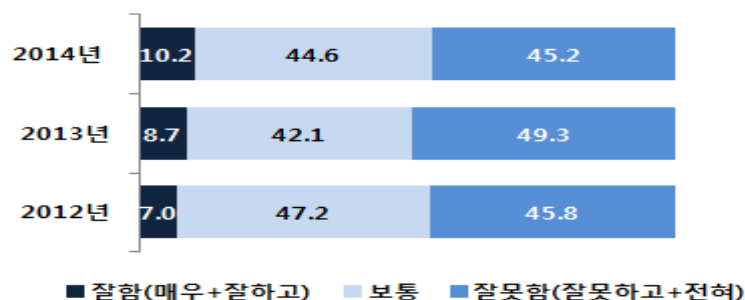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설문 응답자들은 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저축·연금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대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적금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89.2%, 보험회사 저축·연금보험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연금저축, 펀드 등은 29.9%, 주식, 채권 등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늘어남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하여 본인이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10.2%에 불과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45.2%로 높게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령액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 5.3%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액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19.1%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1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 준비에 대한 평가

(N=1,200 / 단위: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41.8%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약 41.8%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자들은 답변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경우 필요한 노후소득의 43.3%와 42.5%를, 60대 이상의 경우 필요한 노후소득의 38.7%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가구당 매달 저축액은 평균 31.27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강화는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구매의향은 낮음

보험 상품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나타난 반면 ‘높다’는 응답 비율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 반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강화 필요성

(N=1,200)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에 불과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응답자 비율이 57.3%로 가장 많았다.

※ 첨부 :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첨 부>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13년과 비교하여 1.4%p 상승한 97.5%로 나타남.

○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5.8%로, 2013년(83.0%) 대비 2.8%p 증가함.

○ 가구당 손해보험 가입률은 87.7%로 2013년(86.8%) 대비 0.9%p 증가함.

<표 I-1> 가구당 보험가입률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명보험	87.2	90.8	89.9	88.0	87.3	86.3	83.0	85.8
손해보험	82.3	86.3	87.4	85.9	91.4	87.2	86.8	87.7
전체	95.6	97.7	97.4	96.4	98.0	96.1	96.1	97.5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그리고 가구 소득 등에 따른 특성별 가구 보험가입률 조사 결과, 201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가구 보험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6.8%p,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8.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은 40대(-0.4%p), 50대(-1.6%p)에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소득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저소득(+3.0%p), 중소득(+2.1%p)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반면, 고소득(-0.1%p)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하락함.

<표 I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체 가입률		96.1	96.1	97.5	86.3	83.0	85.8	87.2	86.8	87.7			
거주 지역별	대도시	97.7	96.6	97.8	88.6	85.2	87.1	88.3	86.1	86.9			
	중소도시	95.1	96.4	97.1	84.7	81.5	84.6	87.0	89.5	88.8			
	군지역	92.6	91.3	97.9	82.4	78.8	85.6	82.4	76.9	85.6			
세대주 연령	30대	97.6	96.2	96.5	85.3	78.0	83.1	86.9	90.3	90.5			
	40대	99.0	99.3	98.9	92.9	87.8	89.5	96.1	95.5	95.1			
	50대	98.1	98.1	98.7	90.9	88.4	88.5	91.1	93.1	91.5			
	60대 이상	89.1	90.3	95.4	74.4	75.6	81.2	72.6	67.9	73.9			
가구 소득	저소득	86.7	86.9	90.2	68.6	69.9	72.9	66.6	63.0	63.6			
	중소득	98.6	98.5	98.7	89.9	83.7	85.8	92.4	92.7	90.9			
	고소득	100.0	99.7	99.6	95.5	92.0	91.9	96.0	96.8	95.2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2013년 대비 0.2%p 하락함.

○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2013년(77.3%) 대비 2.0%p 상승한 79.3%로 나타나 2012년 수준을 회복함.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2013년(74.6%p) 대비 0.3%p 하락한 74.3%를 기록함.

<표 I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명보험	81.4	78.0	79.3	77.3	79.3
손해보험	65.0	71.5	67.9	74.6	74.3
전체	92.1	92.5	92.9	94.0	93.8

■ 개인의 보험가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93%대로 비슷하게 나타남.

○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여성(82.5%)이 남성(75.9%)보다 6.6%p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2.7%)이 여성(66.1%)보다 16.6%p 높게 나타나 성별에 의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향이 다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개인 가입률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30대는 생명보험(-0.7%p)과 손해보험(-1.4%p)이 모두 전년대비 하락함.

<표 I-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체 가입률		96.1	96.1	97.5	86.3	83.0	85.8	87.2	86.8	87.7
성별	남성	92.4	93.5	93.9	75.3	71.4	75.9	78.7	82.7	82.7
	여성	93.4	94.4	93.6	83.2	83.0	82.5	57.4	66.8	66.1
연령	20대	92.3	90.6	84.9	74.5	67.0	69.3	55.8	65.5	55.8
	30대	96.8	96.8	96.7	82.9	81.9	81.2	79.0	85.1	83.7
	40대	97.0	98.1	97.8	84.4	82.1	85.8	78.5	88.4	87.3
	50대	94.7	96.5	97.9	89.0	83.4	85.6	69.6	81.2	81.4
	60대 이상	83.1	87.3	89.9	65.0	70.6	72.5	53.5	50.8	59.7
직업	화이트칼라	97.7	98.1	96.7	86.6	81.4	80.5	79.0	84.5	82.7
	블루칼라	89.6	92.3	90.3	71.4	67.9	77.1	68.0	75.2	71.7
	자영업	93.5	95.7	96.5	79.1	80.2	80.1	75.3	80.4	83.3
	농/임/어업	100.0	94.4	100.0	66.7	85.9	83.3	83.3	63.3	50.0
	주부	93.6	100.0	93.8	83.6	75.0	86.0	54.0	50.0	63.2
	은퇴자	-	-	87.5	-	-	68.8	-	-	53.1
학력	무직/기타	79.4	74.7	79.6	58.7	50.7	51.0	52.4	50.7	49.0
	중졸 이하	67.6	76.8	85.7	52.9	61.6	70.5	29.4	35.2	50.9
	고졸	93.7	95.2	93.9	79.1	78.8	80.0	69.0	75.0	74.2
결혼	대재 이상	97.1	97.0	95.6	84.7	79.6	80.4	74.5	83.8	79.8
	기혼	93.7	94.9	95.8	82.2	79.8	81.4	70.8	76.0	77.3
여부	미혼	89.6	90.1	85.5	66.5	67.0	70.5	55.2	68.7	62.2
	미혼	89.6	90.1	85.5	66.5	67.0	70.5	55.2	68.7	62.2
가구 소득	저소득	82.3	84.8	86.9	62.5	67.5	68.7	52.2	53.6	56.5
	중소득	95.9	97.0	94.1	84.1	78.8	78.4	73.0	82.2	76.7
	고소득	97.2	96.8	96.5	85.8	82.8	85.2	73.0	79.8	79.7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77.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망보장보험(38.0%)과 저축성 보험(37.3%)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 저축성 보험 개인 가입률이 2013년 대비 18.8%p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질병보장보험(+9.7%p), 사망보장보험(+13.2%p), 그리고 변액보험(+1.5%p) 등 모든 생명보험의 종목별 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표 I -5>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가입률		67.9	77.6	24.8	38.0	18.5	37.3	6.2	7.7
연령	20대	55.7	75.9	13.3	38.2	11.8	36.7	5.4	5.5
	30대	69.8	73.6	30.2	42.3	22.2	43.9	7.3	13.4
	40대	70.1	81.3	35.8	45.9	23.5	49.3	9.7	11.2
	50대	78.6	82.6	28.4	42.8	23.1	38.1	7.9	5.9
	60대 이상	63.9	74.0	13.9	21.3	10.7	18.6	0.4	1.9
직업	화이트칼라	69.0	76.1	31.0	46.7	22.1	50.7	8.1	9.6
	블루칼라	60.7	76.4	17.1	32.6	14.5	35.3	3.4	7.8
	자영업	69.4	76.0	29.2	38.4	20.9	33.1	7.8	5.9
	농/임/어업	78.2	100.0	23.8	33.3	19.4	33.3	6.0	0.0
	주부	58.3	84.7	0.0	39.3	8.3	34.7	0.0	9.5
	은퇴자	—	78.1	—	9.4	—	15.6	—	0.0
	무직/기타	46.7	65.3	13.3	28.6	5.3	30.6	1.3	6.1
학력	중졸 이하	56.8	65.2	6.4	14.3	10.4	6.3	0.0	0.9
	고졸	70.7	71.3	24.3	27.1	19.4	26.6	5.7	4.8
	대재 이상	67.6	68.5	29.9	29.1	19.6	28.7	8.2	6.9
결혼	기혼	71.1	72.9	26.7	28.1	19.6	26.6	6.7	5.7
	미혼	54.5	56.4	17.2	21.6	13.7	22.0	3.9	3.3
가구 소득	저소득	61.6	61.2	10.0	14.5	11.8	11.7	0.7	0.9
	중소득	67.6	66.7	28.1	27.5	17.6	22.2	7.3	4.9
	고소득	73.2	76.9	31.6	31.7	24.9	36.2	8.8	7.6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 72.7%, 일반손해보험 12.2%로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장기손해보험은 12.5%p, 일반손해보험은 5.0%p 상승하였음.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2013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60대 이상(+21.2%p), 일반손해보험은 40대(+7.1%p)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소득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가구는 장기손해보험(+14.1%p)과 일반손해보험(+8.5%p)이 모두 상승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장기손해보험(+8.7%p)과 일반손해보험(-0.8%p)의 상승폭이 고소득 가구에 비하여 작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I -6>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3	2014	2013	2014
가입률		60.2	72.7	7.2	12.2
연령	20대	51.7	67.3	9.9	15.1
	30대	70.6	79.5	7.3	11.7
	40대	73.9	80.2	7.8	14.9
	50대	63.8	75.4	8.3	11.4
	60대 이상	38.9	60.1	3.2	8.1
학력	중졸 이하	29.6	51.8	3.2	3.6
	고졸	60.0	72.0	7.9	11.3
	대재 이상	67.8	78.2	7.4	14.7
결혼	기혼	61.2	74.0	6.7	12.1
	미혼	55.8	67.2	9.0	12.4
가구 소득	저소득	42.2	50.9	6.9	6.1
	중소득	65.9	75.2	7.3	11.6
	고소득	65.8	79.9	7.2	15.7

■ 2014년 조사에서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 채널, 특히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95%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5% 이하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손해보험 또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2011년 4.7%에서 2014년 9.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I -7>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9.9	95.3	95.4	96.3	96.3	96.0	95.5	96.4
직판	8.1	3.9	2.0	1.6	2.1	2.6	2.4	1.9
은행	2.0	4.6	3.1	2.5	1.9	1.6	3.1	3.2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보고서의 < I. 조사의 개요> 참고.

3) 2008, 2009년은 복수응답을 포함하며, 기타 채널은 생략함(이하 동일).

<표 I-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8.3	91.2	92.3	92.6	95.5	92.7	93.2	94.2
직판	11.2	8.0	6.3	7.7	4.7	6.2	8.0	9.1
은행	0.5	2.6	1.4	0.5	0.5	1.1	1.9	1.3

주: 1) 2008년부터 표본추출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함(이하 동일).

2)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개인 보험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써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의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3) 2008년 이후는 복수응답 구성비임.

4)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5)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4.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종목들이 모두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향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의 비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각 2.6%p 증가하여 생명보험 65.9%, 손해보험 44.1%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가입 의향을 2013년과 비교한 결과, 변액보험이 1.2%p 증가한 가운데, 저축성 보험이 가장 높은 18.3%로 나타났고, 질병보장보험(17.3%), 사망보장보험(6.3%), 변액보험(4.7%)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장기손해보험이 전년대비 2.4%p 감소한 19.5%, 일반손해보험은 3.3%p 상승한 11.3%로 나타남.

<표 I-9> 보험 상품별 가입 의향 비교

(단위: %, %p)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보장 보험	사망 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의향 없음	장기 손해 보험	일반 손해 보험	의향 없음
2010년	16.9	6.7	14.4	5.8	65.2	24.3	8.3	36.4
2011년	19.8	11.7	20.6	5.9	56.9	29.8	8.8	34.1
2012년	15.2	7.9	17.3	4.6	64.3	20.4	9.3	49.1
2013년	17.9	6.6	19.1	3.5	63.3	22.0	8.0	41.5
2014년	17.3	6.3	18.3	4.7	65.9	19.6	11.3	44.1
증가율	-0.6	-0.3	-0.8	1.2	2.6	-2.4	3.3	2.6

주: 사망보장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에는 연금보험이 포함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의 95% 이상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은 손해보험(98.5%)이 생명보험(95.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노후자금 마련(21.0%), 저축수단(12.1%), 그리고 유산상속 목적(3.8%)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역시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저축수단(1.6%), 노후자금 마련(1.2%), 그리고 세제혜택 유리(0.9%) 순으로 조사됨.

<표 I-10>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3	2014	2013	2014
위험보장	94.2	95.5	97.8	98.5
노후자금 마련	19.0	21.0	1.6	1.2
목돈마련 저축수단	10.7	12.1	3.0	1.6
자산증식 투자수단	2.9	1.8	0.9	0.3
유산상속 목적	5.2	3.8	0.3	0.2
세제혜택 유리	0.3	2.5	0.3	0.9

■ 생명보험은 보험 종목별로 보험가입 이유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손해보험은 종목과 상관없이 모두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7%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보장보험(97.8%)과 사망보장보험(70.1%)에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저축성 보험(54.5%)과 변액보험(39.7%)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I-11> 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저축 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 증식	유산 상속	세제 혜택
생명 보험	질병보장보험	97.8	0.4	1.0	0.1	0.1	1.0
	사망보장보험	70.1	10.0	5.9	1.9	8.7	3.1
	저축성 보험	21.1	26.9	54.5	2.9	1.6	1.6
	변액보험	38.1	15.9	39.7	4.8	3.2	1.6
	기타	98.1	—	1.2	—	—	0.6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98.8	0.2	0.2	—	0.2	0.7
	장기손해보험	97.8	1.8	1.4	0.4	0.1	0.8
	일반손해보험	100.0	—	—	—	—	—

5.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회사가 대형사라는 응답이 생명보험 75.8%, 손해보험 82.6%로 여전히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3.2%p)와 중소형사(6.1%p)의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직판사(-2.5%p), 공제/기타(-0.1%)는 소폭 하락하였음.
-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형사(4.4%p)와 외국사/직판사(0.9%p)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3.1%p)와 공제/기타(-1.7%p)는 하락하였음.

<표 I-12> 최근 3년간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단위: %)

선호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형사	72.0	71.5	71.8	72.6	75.8	73.8	79.9	80.3	78.2	82.6
중소형사	19.1	19.2	15.4	15.7	21.8	29.1	20.6	18.5	20.6	17.5
외국사/직판사	12.9	14.1	15.0	12.3	9.8	7.9	4.9	4.8	5.1	6.0
공제/기타	7.0	6.7	6.2	6.0	5.9	1.4	2.6	2.6	2.7	1.0

■ 보험회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상품 경쟁력과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 선택의 경우 상품 경쟁력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브랜드 신뢰성(17.2%), 가격 경쟁력(15.1%), 그리고 서비스 지원(10.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요인들은 10% 이하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 선택의 경우도 상품 경쟁력(48.2%)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브랜드신뢰성(18.7%)과 가격 경쟁력(17.5%)이 뒤를 이음.

<표 I-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선택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품 경쟁력	43.8	38.7	38.2	48.7	48.9	41.8	37.0	35.6	48.2	45.4
브랜드 신뢰성	21.8	28.6	26.6	18.3	17.2	17.9	28.1	27.8	17.8	18.7
서비스 지원	12.2	10.7	13.1	10.8	10.4	14.2	11.1	10.8	12.2	10.4
가격 경쟁력	8.5	10.0	12.3	14.3	15.1	11.5	10.8	16.7	14.3	17.5
개인적 관계	5.3	5.8	4.3	4.3	4.3	6.2	7.1	4.8	5.3	4.7
회사 규모	3.5	3.3	2.3	1.8	2.7	3.8	2.7	1.2	0.8	1.8
설계사 전문성	1.8	0.8	1.2	0.5	0.7	1.6	0.8	1.2	0.4	0.5
경영 철학	1.3	0.4	1.1	0.4	0.3	1.1	0.4	0.5	0.1	—
과거 거래 경험	1.0	0.7	0.6	0.4	0.3	1.2	0.8	0.7	0.6	0.5
계약 편의성	0.8	1.2	0.5	0.5	0.2	0.8	1.3	0.9	0.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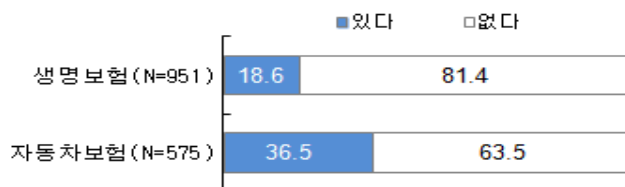
주: 상품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6.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재 가입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가입자의 18.6%,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36.5%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1>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단위: %)



II. 생명·손해보험 공통

1. 연금보험 및 노후 생활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

- 노후대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적금을 89.2%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후근로소득(63.8%), 공적연금(56.1%), 그리고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52.6%) 순으로 나타남.

<표 II-1>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
(단위: %)

특성별	가입 의향		중요도
	예	아니오	
공적연금	56.1	43.9	8.32
퇴직연금	38.1	61.9	8.51
은행 예·적금	89.2	10.8	8.54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	52.6	47.4	8.05
연금 저축(은행), 펀드(증권)	29.9	70.1	8.09
주식, 채권(펀드)	12.2	87.8	7.26
부동산 임대수입	39.4	60.6	8.32
노후 근로소득	63.8	36.3	8.11
자식의 경제적 지원	25.2	74.8	6.79
주택연금	30.8	69.2	7.54

■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0.2%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5.2%로 나타남.
- 노후준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대도시(47.5%), 남성(46.4%), 20대(61.3%) 계층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40대(13.1%)와 50대(13.1%), 군지역(15.5%)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단위: %)

특성		긍정	보통	부정	평균
전체		10.2	44.7	45.2	2.54
지역 규모	대도시	9.9	42.7	47.5	2.53
	중소도시	9.5	46.4	44.0	2.53
	군지역	15.5	46.4	38.1	2.68
성별	남성	10.3	43.2	46.4	2.53
	여성	10.0	46.1	43.9	2.55
응답자 연령	20대	7.0	31.7	61.3	2.16
	30대	5.0	45.2	49.8	2.45
	40대	13.1	50.7	36.2	2.72
	50대	13.1	51.3	35.6	2.72
	60대 이상	11.6	41.9	46.5	2.5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3.6	48.9	37.5	2.69
	블루칼라	6.6	37.6	55.8	2.33
	자영업	12.9	47.8	39.3	2.69
	농/임/어업	0.0	50.0	50.0	2.33
	주부	8.7	45.9	45.5	2.52
	은퇴자	6.3	46.9	46.9	2.59
	무직/기타	2.0	28.6	69.4	1.88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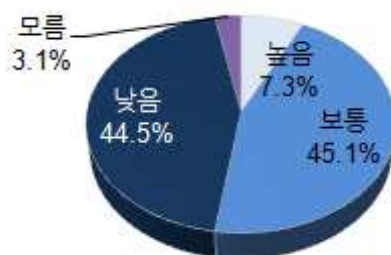
2.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 응답자에게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판단해 달라고 한 결과, 45.1%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44.5%의 응답자가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 금융 이해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계층은 남성, 40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1>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N=1,200)



■ 소비자의 보험이해도 조사

- 보험 관련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해지환급액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과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86.6%와 71.1%로 높았음.
- 변액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해지된 보험계약을 본래대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 밖에 공시이율과 보험료 간의 관계, 보험료지수에 대한 인지도는 6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3> 보험 관련 이해도

(단위: %)

구분	정답률	오답률
변액보험상품과 예금자 보호	47.3	52.7
보험계약해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86.6	13.4
청약철회와 보험료 환급	66.3	33.7
위험보험료 환급가능 여부	71.1	28.9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가능 여부	42.3	57.7
공시이율과 보험료의 관계	59.3	40.8
보험료지수와 가격비교	59.0	41.0

3. LTCI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 간병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37.7%,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62.3%로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24.6%p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0.2%)이 남성(35.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과 직업에 의한 가입 의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4>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37.7	62.3
성별	남성	35.1	64.9
	여성	40.2	59.8
응답자 연령	20대	30.7	69.3
	30대	36.8	63.2
	40대	38.4	61.6
	50대	42.4	57.6
	60대 이상	38.8	61.2
	화이트칼라	36.4	63.6
직업	블루칼라	36.0	64.0
	자영업	39.3	60.7
	농/임/어업	0.0	100.0
	주부	43.8	56.2
	은퇴자	28.1	71.9
	무직/기타	22.4	77.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I-2>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N=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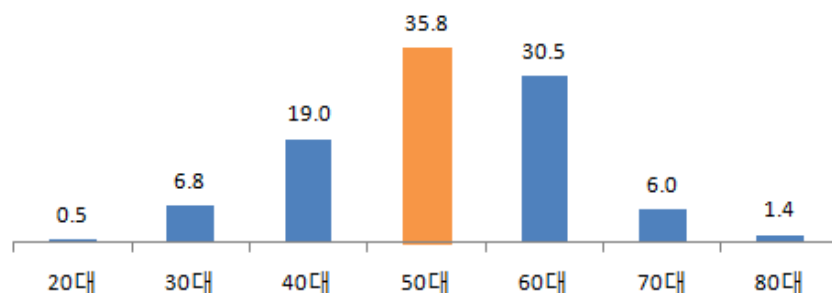


■ 간병보험 가입 적정 시기

- 간병보험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30.5%)와 40대(19.0%) 순으로 조사됨.

<그림 II-3> 간병보험 가입 적정 시기

(N=1,200)



<표 II-5>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연령별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20대	0.5	0.0	1.3	0.0	0.4	0.8	0.0	1.0
30대	6.8	11.6	9.2	6.3	5.1	3.1	7.5	6.2
40대	19.0	29.6	28.0	22.4	8.1	8.9	20.0	18.0
50대	35.8	32.2	39.3	44.4	49.6	13.6	33.9	37.5
60대	30.5	21.1	19.7	23.5	29.7	55.8	31.0	30.0
70대	6.0	4.5	2.5	1.9	6.4	14.3	6.6	5.4
80대	1.4	1.0	0.0	1.5	0.8	3.5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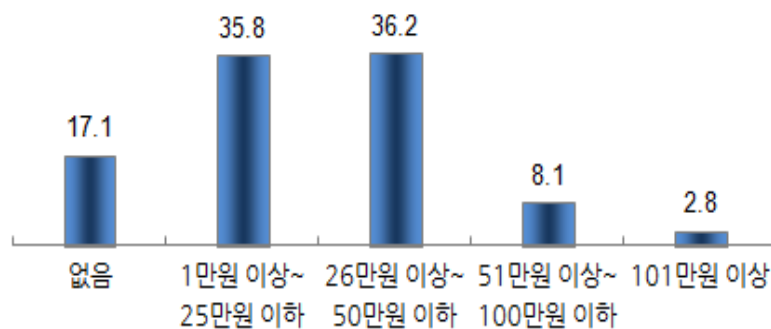
4.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 현재 매달 저축액

- 매달 저축액은 평균 31.2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 저축액은 26만 원~50만 원 이하(36.2%)와 25만 원 이하(35.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저축액은 40대가 가장 많은 39.75만 원으로 조사된 반면, 20대는 14.98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II-4> 현재 저축액

(N=1,200)



<표 II-6> 현재 저축액

(단위: %, 만 원)

특성별		없음	25만 원 이하	26만 원~50만 원	51만 원~100만 원	101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7.1	35.8	36.2	8.1	2.8	31.27
성별	남성	17.8	34.7	36.4	8.3	2.7	30.13
	여성	16.4	36.9	35.9	7.9	3.0	32.38
응답자 연령	20대	39.7	40.7	16.1	3.0	0.5	14.98
	30대	14.6	38.5	36.4	9.2	1.3	28.89
	40대	9.3	32.8	43.3	9.3	5.2	39.75
	50대	8.9	29.7	42.8	14.8	3.8	38.85
	60대 이상	17.4	38.4	38.0	3.5	2.7	30.31
	화이트칼라	12.5	33.8	41.9	8.5	3.3	32.98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22.5	39.9	29.8	5.4	2.3	27.72
	자영업	12.6	32.0	39.0	11.7	4.7	38.60
	농/임/어업	16.7	66.7	16.7	0.0	0.0	16.67
	주부	12.8	39.3	39.3	7.9	0.8	28.94
	은퇴자	18.8	43.8	31.3	3.1	3.1	24.84
	무직/기타	65.3	26.5	8.2	0.0	0.0	6.9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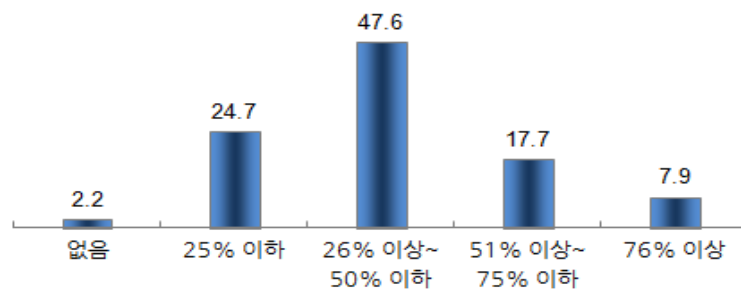
■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평균적으로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의 41.18%를 마련한 것으로 응답함.

○ 구간별로는 26%~50% 이하가 47.6%로 가장 높았으며, 25% 이하(24.7%), 51% 이상~75% 이하(17.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가 평균 43.25%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평균 38.72%로 가장 낮았음.

<그림 II-5>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N=1,200)



<표 II-7>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단위: %)

특성별		없음	25% 이하	26% ~50%	51% ~75%	76% 이상	평균
전체		2.2	24.7	47.6	17.7	7.9	41.18
성별	남성	1.9	25.8	46.3	18.8	7.3	41.05
	여성	2.5	23.6	48.9	16.6	8.5	41.31
응답자 연령	20대	5.5	23.6	46.2	18.6	6.0	39.32
	30대	1.3	25.1	48.5	18.8	6.3	41.74
	40대	0.7	20.5	48.9	21.3	8.6	43.25
	50대	0.4	25.0	50.0	12.3	12.3	42.54
	60대 이상	3.5	29.1	44.2	17.1	6.2	38.7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1	19.1	50.4	21.0	8.5	44.03
	블루칼라	3.1	22.5	55.8	13.6	5.0	39.71
	자영업	0.9	22.3	44.0	20.8	12.0	45.03
	농/임/어업	16.7	50.0	33.3	0.0	0.0	19.17
	주부	1.7	28.9	47.5	15.3	6.6	38.41
	은퇴자	0.0	46.9	31.3	18.8	3.1	33.44
무직/기타		14.3	44.9	26.5	12.2	2.0	27.8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62.7%)이 높았으며,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중(11.1%)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6>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N=1,200)



<표 II-8>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알고 있다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전체		11.1	62.7	26.3
성별	남성	12.0	58.1	29.8
	여성	10.2	67.0	22.8
응답자 연령	20대	8.0	64.8	27.1
	30대	17.6	54.0	28.5
	40대	14.9	57.5	27.6
	50대	9.7	64.0	26.3
	60대 이상	4.7	73.3	22.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4	53.7	30.9
	블루칼라	9.7	65.9	24.4
	자영업	11.1	62.2	26.7
	농/임/어업	0.0	100.0	0.0
	주부	9.1	67.8	23.1
	은퇴자	9.4	62.5	28.1
	무직/기타	6.1	69.4	24.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은 24.6%(있다 5.5% + 조금 19.1%)로 4명 중 1명가량이 자산관리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은 30대에서 가장 높고(29%), 60대가 가장 낮은(14.7%) 것으로 조사 됨.

<그림 II-7>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N=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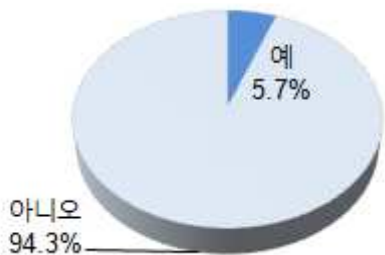
7.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질문

■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7%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 연령, 직업에 의한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8>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N=1,200)



<표 II-9>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N=1,200,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전체		5.7	94.3
성별	남성	5.3	94.7
	여성	6.1	93.9
응답자 연령	20대	2.5	97.5
	30대	7.9	92.1
	40대	6.7	93.3
	50대	8.1	91.9
	60대 이상	2.7	97.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8.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다으며, 상품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은 33.8%,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30.0%로 조사됨.

<그림 II-9>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N=1,200)



<표 II-10>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특성별		있음	보통	없음
전체		30.0	36.2	33.8
성별	남성	29.0	37.6	33.4
	여성	31.0	34.8	34.3
응답자 연령	20대	32.2	37.2	30.7
	30대	32.2	35.6	32.2
	40대	32.1	37.3	30.6
	50대	27.5	35.6	36.9
	60대 이상	26.4	35.3	38.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2.0	33.5	34.6
	블루칼라	27.1	40.3	32.6
	자영업	31.7	35.2	33.1
	농/임/어업	50.0	33.3	16.7
	주부	31.4	32.6	36.0
	은퇴자	21.9	46.9	31.3
	무직/기타	18.4	46.9	34.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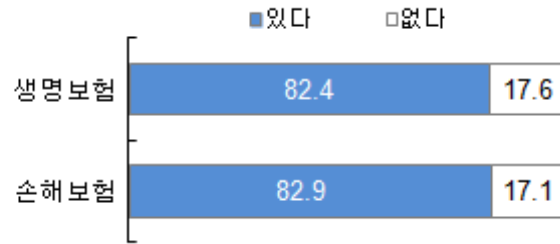
■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생·손보 모두 80% 이상으로 조사됨.

○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생명보험(82.4%)과 손해보험(82.9%)이 비슷하게 나타남.

○ 성별, 연령, 직업에 의한 거부 의향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10>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N=1,200)



<표 II-11>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단위: %)

특성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82.4	17.6	82.9	17.1
성별	남성	84.2	15.8	84.2	15.8
	여성	80.7	19.3	81.6	18.4
응답자 연령	20대	79.4	20.6	80.9	19.1
	30대	90.0	10.0	85.4	14.6
	40대	83.6	16.4	85.8	14.2
	50대	80.5	19.5	83.9	16.1
	60대 이상	78.3	21.7	78.3	21.7
	화이트칼라	83.1	16.9	81.6	18.4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81.0	19.0	84.1	15.9
	자영업	83.3	16.7	83.3	16.7
	농/임/어업	83.3	16.7	100.0	0.0
	주부	83.5	16.5	83.5	16.5
	은퇴자	75.0	25.0	81.3	18.8
	무직/기타	79.6	20.4	77.6	22.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